

‘오바마 2기’ 공식 출범... 대통합 강조

의사당서 취임식... 구체적 정책 내달 연두교서에 담을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 낮 12시(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임 선서를 함으로써 2기 임기를 공식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블루룸에서 부인 미셸 여사와 두 딸 사샤, 말리아가 지켜보는 가운데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선서를 했다. 정확하게는 미국 동부 시간 오전 11시55분 선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역사 깊은 흑인 교회도 방문했다.

앞서 조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아침 관저에 있는 해군 관측소에서 부인 질 여사 등 가족과 지인들에 둘러싸여 부통령 선서를 했다.

이날 취임 선서는 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 임기가 20일 낮 12시에 끝나고 후임자의 임기가 시작되며, 대통령 직무 수행을 앞서 선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20일이 올해는 일요일이라서 관례에 따라 공식 취임식은 21일 오전 11시30분(한국 시간 22일 오전 1시30분)부터 의회의사당 ‘캐피톨 힐(Capitol Hill)’ 계단에 마련된 특별무대에서 열린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의회 지도자들과 전직 대통령 등과 오

찬을 함께 한 뒤 오후 2시35분부터 의사당에서부터 펜실베이니아 예비 뉴를 따라 백악관까지 2.7km에 이르는 길을 리무진을 타고 행진한다. 경찰은 취임식에 참가할 인원을 60만~80만명으로 예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취임 연설에서 앞으로 자신이 펼칠 비전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 달 12일 연두교서에 밝힌다.

20일 백악관과 주요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인종과 당파를 뛰어넘어 ‘하나의 미국’을 건설하자는 대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식의 주제도 ‘우리 국민, 우리 미래(our people, our future)’다.

특히 올해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 선언문에 서명한 지 150년이 되며, 흑인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 연설로 유명한 ‘유심턴 행진’을 한 지 50년이 되는 의미를 담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선서 때 링컨 대통령과 킹 목사가 사용한 성경에 손을 올려놓는다.

지난 17일 여론조사기구 퓨리서치가 조사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52%로 낮았다. 이에 따라 그의 2기 여정이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블루룸에서 부인 미셸 여사가 받쳐주고 있는 성경에 손을 얹고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사진에는 안 보임)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공화당과 국가 채무 한도 증액 협상을 당장 해야 하고 재정 지출 삭감 문제로 처리해

야 한다.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복지 개혁작업과 총기규제, 이민법 개혁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연합뉴스

원자력 협정·방위비 분담 이견 가능성

■ 오바마 2기-박근혜 정부 한미관계 전망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제2기 정부가 21일(현지시간) 출범하면서 내달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양자 관계를 어떻게 펼쳐갈지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 직후인 지난달 21일 박근혜 당선인에게 당선 축하전화를 걸어 “지금 한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며, 한미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역사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한미동맹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를 바란다”(12월 21일), “한미간 동맹관계가 21세기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

다”(1월 16일) 등의 메시지를 통해 한미동맹 및 한미관계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양국 지도부가 상대국과의 관계 강화를 매우 중시하는데다 올해 정전 60주년과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이어서 양국 관계는 큰 틀에서 순조롭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를 기다리고 있다. 두 현안은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양국 통합 발전이란 측면에서 당면한 과제로 꼽힌다.

두 현안에 대한 양국 간 이견 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원자력 분야에서의 기술이전협상이 마무리단계에 돌입한 가운데 이제 ‘분할상’을 앞두고 있다. 한국이 핵심 동맹국인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농축·재처리 요구를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경제 전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다. 미국은 현재 40%대인 방위비 분담 비율을 50% 수준으로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비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오는 3~4월께 시작될 협상에서 한미간의 이견차가 표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미간 미묘한 온도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오늘 ‘택시법’ 국무회의 상정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거부권 행사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는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원안 의결 2가지가 모두 상정되며, 국무위원들이 심의·의결해서 의견을 올리면 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형태로 법안이 처리된다. 현재로서는 이 대통령은 물론 국무위원 내에서도 택시법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해 새 설계

김주열 전남개발공사 사장

“무안 오룡택지개발 상반기 착공”

전남개발공사의 모토는 ‘전남 미래 가치 디자이너’다. 전남의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디자이너의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다보니 수익성보다는 전남도의 판단에 따라 사업을 떠나는 데는 비관도 제기된다.

하지만 김주열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21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기업도 기업인데 수익성없는 사업에 뛰어들겠느냐”며 “전남의 미래 가치에 부합하면서 수익이 나는 사업을 최우선 투자처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재임에 성공한 김 사장은 3000억원에 못 미치는 매출액을 2020년에는 5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 일답.

-설립 8년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흑자가 전환됐다. 비결은 무엇인가.

▲3월 결산이라 그때 돼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지만 현재 상태로 추정하면 지난해 택지분양 등으로 2700억원 가까운 매출을 올려 201억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당기 순이익도 79억원에 달한다. 비결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동안 투자단계였던 사업들이 이제는 본격적인 회수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성과 제고와 재무건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별로 10%의 수지 개선방안을 마련한 점도 주요했다. 공사채를 받



‘남약’ 규모 6천억 투자

경도골프장 하반기 개장

수익 사업 최우선 투자

행해 투자를 하다보니 부채로 잡혔는데 사실 전남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은 타 지자체 도시개발공사의 평균 부채비율(243.4%)보다 훨씬 낮은 142.7%다. 어쨌든 올해는 2년 연속 흑자경영을 목표로 재무건정성 확보에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핵심사업은 무안군 일로읍에 추진중인 오룡지구택지개발사업이다. 270만㎡에 5990억원을 투자해 올해 상반기중에 착공에 들어간다. 남약신도시사업에 그만한 규

모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목포시가 인근에 임성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 면에서 오룡지구와 비교가 안된다.

여수 경도는 하반기에 골프장 27홀이 모두 문을 열면 관광단지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다. 산업단지 분양에도 전남하겠다. 장흥바이오산단과 강진환경산단이 개발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조성되고 있고 경기침체로 아직은 분양이 저조한 실정이지만 장흥바이오산단의 경우 분양가를 대폭 인하하는 조치를 취한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J프로젝트 삼포지구는 최재주 주인 SK건설의 대체 출자자로 중국 투자자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도 관광단지는 외국인 부동산 산투자민제가 적용되는 곳이다. 실적은 있다.

▲아직까지는 실적은 없다. 관광단지가 아직 완전한 모습을 갖추지 않았고 1개 객실에 5명 이상으로 묶인 분양인원 제한이 원인이다. 다행히 최근 1인 분양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돼 중국인을 겨냥한 맞춤형 상품 개발로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부동산투자자인 유치를 놓고 제주도와 경쟁하는 상황이라 여수를 외국에 알리려는 지자체의 노력도 절실한 실정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FC 자본금 잠식·F1 등 이슈

시·도의회 올 첫 임시회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각각 22일과 23일 올해 첫 회의인 임시회를 개최하고 10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제214회 임시회에서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소관 상임위원회별 시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안·동의안·승인안 등 일반안건 22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중 심의될 조례안은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광주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과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등 19건이다.

특히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회기동안 광주FC 관련 각종 의혹 상임위원회별 시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안·동의안·승인안 등 일반안건 22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속소로 구입한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전남도의회도 23일 제274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내달 1일까지 10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전남도 LED조명보급 촉진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개최권료 인하를 위해 F1 운영사업 FOM(포뮬러원 매니지먼트)과 협상 과정에 대한 F1 주요업무 보고 등이 장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경매·소액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입)특수물건

-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률 보장)
-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률 보장)
-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이지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한국공인중개사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서구정영) 광주 서구 동성동 64-5
네이버 카페에서 hankookland로 검색

누구나 갖고 싶은 땅을 눈여겨 보십시오!

I. 나주혁신도시-상업용지

- 메인도로3면코너 1080㎡ 매매가 24억5천만원
- 호수공원테라스거리 705㎡ 매매가 14억9천만원
- 호수공원내3면코너 1288㎡ 매매가27억3천만원
- 메인도로코너 1056㎡ 매매가 23억9천만원

II. 나주혁신도시-근린생활용지

- 배후아파트상권 640㎡ 매매가 11억6천4백만원
- 배후아파트상권 610㎡ 매매가 11억6천5백만원
- 배후아파트상권 720㎡ 매매가 12억원

III. 남평강변도시- 상업용지및근린생활용지

- 핵심상권코너 529㎡ 매매가 5억4천
- 핵심상권코너 449㎡ 매매가 4억원
- 핵심상권코너 416㎡ 매매가 4억1천만원
- 핵심상권코너 448㎡ 매매가 5억8천6백만원

나주혁신도시,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번지

목욕탕 매매

15,000세대 독점 성업중으로 실수요자 최적!

- 대 지 : 750평
- 건 물 : 1350평
- 용 자 : 20억~25억 (감정가 58억원)
- 매매가 : 40억원
- 실 준비금 15억~20억원 까지

① 주월동 풍암지구 입구 대로번 코너 상가 대지89평, 건평 292평 매가 6억3천
② 광산구 운수동 자연복지 도로 접 전1,382평 매가 8억5천(공장, 창고, 기둥 등 적함)
③ 세하동 서광주역 뒤 자연복지(그린벨트) 도로 접 임(전) 1,957평 매가 5억3천(투자최적)

행운공인중개사
011-642-7777

가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금매

“담양” 무인텔
대 지 : 5,048㎡
연건평 : 2,474㎡
객 실 : 32개
현 성업중
상무지구에서 15분
매매가
상담후 결정

염전 금매

해남 염전
138,600㎡
신안 지도
50,000㎡
매매가
상담후 결정

상무지구 랜더피어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 시내권 및 시외순번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영일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히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 011-602-2532
(광주은행 신촌점,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